

우리나라 이러닝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

ISO 이러닝 국제표준화 회의 제주에서 개최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사이버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러닝 국제표준화 논의가 제주에서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미국, 일본, 한국 등 14개국 80여 명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교육정보 기술위원회(JTC1/SC36) 총회가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제주(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JTC1/SC36(교육정보) 기술위원회

1999년 설립 이후 현재 25개 P멤버 회원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닝 용어, 학습자 정보 및 지원기술, 메타데이터 등 교육정보분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별 이러닝 기술 개념을 통일하기 위한 용어 정의 및 메타데이터 기술 등 산업화에 필요한 서비스 표준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메타데이터*는 콘텐츠의 공유 및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이러닝 서비스의 필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국의 참여한 의견 차이로 인해 표준화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난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이번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다.

* (이러닝) 메타데이터 : 교육자원의 제목과 속성 등을 설

명해주는 텍스트정보로서, 검색과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설명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번회의에서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교육, 기술, 저작권에 관한 3종의 메타데이터 기술(KEM*)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현재 KS규격으로 제정되어 16개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이러닝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국제표준에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 이러닝 콘텐츠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 한국형 교육 정보 메타데이터 KS규격으로, 초중등, 고등교육분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이러닝 민간 컨소시엄인 IMS*와 「이러닝 콘텐츠 패키징」 기술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 이러닝 학습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등의 기술규격을 연구·개발하는 교육기관, 기업,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협회조직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주도 가능한 우리나라의 이러닝 콘텐츠 및 서비스등 관련 기술을 적극 발굴하

여 국제표준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JTC1/SC36 제주 총회 개요

■ 행사 개요

- 개최경위 : 「JTC1/SC36 핀란드 총회」에서 2008년 3월 총회 및 W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회의명 : “JTC1/SC36(교육정보)총회및WG 회의”
- 참석 규모 : 14개국 약 80명
- 일시/장소 : 3. 15(토) ~ 3. 22(토) 제주도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 회의 주요 의제

- 이러닝 용어 정의 및 접근성 관련 표준화 논의
 - 국가간, 문화간의 차이로 정의가 어려운 이러닝 용어 및 접근성 분야에 관한 표준 문건 검토
- 이러닝 협력학습 및 지원기술에 대한 표준화 방향 논의
- 이러닝 메타데이터 구조 등 각국의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 검토

■ 우리나라 주요 활용 계획

- 현재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 국내전문가가 프로젝트리더로 작업하고 있는 “이러닝 품질인증, 모바일이러닝” 등 3건의 프로젝트의 국제표준문건 작업
- 국내 이러닝기술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
 - 이러닝 메타데이터, 콘텐츠 패키징기술 등 4종의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
- 우리나라의 JTC1/SC36 간사국 추진
 - 현재 영국의 간사국 임기 만료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사국 수임을 추진

교육(JTC1/SC36) 일반현황

• 작업범위

- 학습, 교육, 훈련을 위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기술분야에서 개인, 그룹 등의 조직들이 각종 자원과 도구들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재사용성을 확대를 위한 기술전반의 표준화

• 회원국 : 총 33 개국

- 정회원국(P-멤버) : 25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등)
- 준회원국(O-멤버) : 8개국(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등)

• 국제표준현황(08.2 기준) : 3종 완료, 30여 개 프로젝트 활동

• 국내전문위원회

- 위원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곽덕훈 교수
- 간사기관 : 한국표준협회
- 위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유넷 등 19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작업반 : 총 7 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 WG1 : 용어표준분과
- WG2 : 협력학습 및 지원기술 표준분과
- WG3 : 학습자정보 및 지원기술 표준분과
- WG4 : 교육자원 메타데이터 표준분과
- WG5 : 품질인증모델 표준분과
- WG6 : 표준프로파일과 지원기술 표준분과
- WG7 : 문화, 언어 및 접근성관련 표준화

• 주요 추진 현황

- 모바일 이러닝, 품질인증모델 등 국내 전문가가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여 국내 기술의 전략적 국제표준 반영(WD, CD작업중)
- 이러닝 메타데이터 등 4종의 신규 국제표준제안·반영